

# 이낙연 “이대로 가면 국힘 압승”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 민주 총선 공천 관련… “민주, 이재명 사육으로 자멸 중” 비명계 의원들 향해 “새로운미래 합류 방법일 수 있다” 새미래, 고창 성일농장 강상훈 대표 등 영입인재 3명 발표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공천과 관련 “민주당이 자멸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공천이 잘못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국민의 힘이 압승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의식이 충분히 많았는데도 (이 대표) 방면에는 부족

했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라며 사실상 비명계(비이재명계)가 공천 배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할 말을 하는 공은 분별이 거의 다 배제되는 공천이 되고 있다”며 “똑똑한 사람들은 선거에 못 나오고, 방탄 잘하게 생긴 사람들만 선거에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의 참패로 인해 의회 권력의 균형이 깨지면 대한민국의 불행이 될 텐데 이를 막기 위해 대안세력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균형을 회복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저희 새로운미래에 합류해주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합류할 가능성을 강하게 말하기도 했다”며 “단계분수령은 이번 주말”이라고도 했다. 김종민 공동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공천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공동대표는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10%에 속한 박용진 의

원의 지역구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를 두고 “당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개 입찰에서 탈락했는데 막판에 반강제로 추가된 업체”라며 “반드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박용진 의원은 이날 현역 의원 하위 10% 평가를 받고 당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편, 새로운미래는 민주당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을 끌어들이는 데 공을 들이는 동시에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하나 브릿지처치 담임목사, 전북 고창군 애플수박을 생산하는 ‘성일농장’의 강상훈 대표를 각각 언론·종교·미래농업 분야의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22일 오후 5시 전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찾아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 “병원들과 함께 도민 불편 최소화”

### 김관영 지사, 전북대병원 방문 의료진 격려 전북자치도,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가동중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의료공백 상황과 관련해 현장 일선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의료진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22일 오후 5시 전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내과 중환자실 등을 잇따라 찾아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환자 치료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지사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각종 사고나 재해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진료에 전념하고 있어 감사하다”며 의료진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또 내과중환자실을 찾아 “전공의들의 부족으로 중증증 이상의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힘든 여건 속에서도 환자들 곁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을 존경한다”고 치하했다.

백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는 만큼 병원측에서도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많은 환자와 보호자 등 도민들의 근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라며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해 병원들과 함께 도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로 위기를 ‘경계’ 경보로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 의사회 등 관련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지방의료원, 보건소의 진료시간 확대, 필요시 공공보건조사 투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료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조인호 단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 “진안군 휴양관광특별시 조성”

### 민주 안호영 의원, 진안 5개 핵심 공약 발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장·장수)이 휴양관광특별시 진안군을 위한 5개의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5개 핵심 공약은 완진무장 4개군을 특별시와 같은 도시로 변화시키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사업을 선정해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각 개별 주요 5가지 사업을 의미한다. 휴양관광특별시를 목표로 하는 진안의 5대 핵심공약은 △산광재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삼진강권역 관광거점 조성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 △마산 하늘길 조성 △국도26호선(안주소양~진안 부귀) 도로개량 사업이다. 신광재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은 현재 조성 중인 국립지리원산림치유원과 전북 동부권 산림을 이용하여 치유산림이 연계되도록 구축하는 사업이다. 세계 산림약식물을 국가적 테스트



베드로 구축하고, 산림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산림교육체험센터, 고원생태 체험과 관광을 겸하는 글로벌 허브 테마파크 등 국립지리원산림치유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둘째, 삼진강권역 관광거점 조성 사업이다. 진안 백운면에서 발원한 삼진강은 호남권 식수원으로 해양문화와 내륙문화를 연결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이다. 삼진강이 보유한 역사와 문화, 생태·산림·수자원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통합적인 관광기반을 마련해서 진안군 삼진강 브랜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취재반

셋째,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 사업이다. 이는 진안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용담호를 자연경관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관광 명소로 부활시키는 것이다. 2028년까지 6년간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538억원을 투입해 용담호 주변의 자연 문화적 가치를 활용해 성공적인 휴양관광도시의 모델로 추진할 것이다. 넷째, 마산 하늘길 조성은 마산도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원과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별화된 시설과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총사업비 200억원 규모로 경쟁력 있고 특화된 거점 관광지를 위해 둘레길, 전망타워 등 확충으로 지역 관광의 성공모델을 창출할 것이다. 끝으로, 국도26호선(안주 소양~진안 부귀) 도로개량 사업이다. 국도26호선 소태정 구간은 급커브, 급경사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다. 총사업비 약600억원 규모로 전주, 진안, 장수 등 동부권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시설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성을 도모한다. /특별취재반

##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 전북자치도의회와 상호 교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22일 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교육지치 실현 방안 및 상호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지 위원장은 “올 1월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고, 연말에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등 5개의 교육관련 특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북의 역사적, 인문적, 지리적 특성을 살린 2차 교육특례 발굴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특례 발굴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식 위원장은 “제주특별법은 2006년 2월 처음 제정되어 교육지치 실현 및 지방교육 자율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7차례 개정을 거쳤다고 말하였으며, “8차 개정 추진중에 있으므로, 전북과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서로 합심해 교육지치를 위한 교육 특례를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김명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방문을 통해 양 기관이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맞는 교육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 최형열 자치도의원, 수소산업 지역균형발전 정책 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지난 21일 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수소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토론회’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형열 의원과 도 에너지수소산업과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도내 동부권 지역의 수소산업 적합성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균형발전 선도교육청 추진 경과와, 유보통합 관련 일일위원회에 따른 추진단 및 전담팀 구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된 전북교육청은 유보통합추진협의회의 개최, 유보통합관리일일위원회에 따른 추진단 및 전담팀 구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된 전북교육청은 유보통합추진협의회의 개최, 유보통합관리일일위원회에 따른 추진단 및 전담팀 구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 “무주를 청정태권특별시로”

### 민주 안호영 의원, 무주 5개 핵심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장·장수)이 청정태권특별시 무주군을 위한 5개의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청정태권특별시를 목표로 하는 무주의 5대 핵심공약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 △안성~적상(국도19호) 4차로 확장 △안성~무주~김천 철도망 구축 △국도37호선 구천동 관광특구 보도 설치 사업이다.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은 213개국 1억5,000만 명이 수련하는 태권도를 국제경쟁력 있게 강화시키고,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을 무주에 유치하는 사업이다. 이로서 전세계 태권도 인재들이 모이는 무주 태권도원에 태권도 공연장과 박물관, 전용 경기장, 공연 등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 태권마을까지 조성되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와 함께 무주군은 세계 유일한 공간에 명실상부한 태권도 메카 도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이다. 태권도 성지 무주가 태권도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전 세계인을 끌어모으듯, 최근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스포츠에 경제적 가치개념이 적용되면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지역 스포츠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1,040억원을 투자하여 무주군 공설운동장 및 체육시설 등 스포츠타운 기반 조성으로 지역 스포츠육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안성~적상(국도19호) 4차로 확장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에서 적상면 사산리까지(4km) 2차로에서 4차

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0억원이다. 현재 무주IC ~ 적상 마산 구간과 안성재 ~ 덕유산IC 안성우회도로 구간은 4차로로 확장되었으나, 그 중간인 적상 마산~안성재(4km) 구간만 2차로로 되어 있어 조속한 확장공사로 사고위험을 감소시키고 지역 접근성을 개선시키려는 것이다. 넷째, 전주~무주~김천 철도망 구축 사업이다. 총사업비 2조 5,496억원으로 수도권 중심 남북방향 위주의 철도교통망에 지역낙후도가 낮은 동서횡단 철도를 건설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류활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끝으로, 국도37호선 구천동 관광특구 보도 설치 사업이다. 일반국도의 특성상 간선도로망의 역할로서 자동차 소동만을 강조함에 따라 주변에 형성된 마을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여 고속주행차량으로부터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특별취재반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성과 제주와 공유

### 전북자치도교육청, 유보통합 업무 협의회 개최 추진내용 등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들과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5층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방문에 따른 유보통합 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제주도의회 김창식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 제주도교육청 오경규 교육국장, 제주시교육지원청 안명숙 교육지원국장, 김희정 행정지원국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문영애 교육행정지원국장 등 25명이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경과와, 유보통합 관련 일일위원회에 따른 추진단 및 전담팀 구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된 전북교육청은 유보통합추진협의회의 개최, 유보통합관리일일위원회에 따른 추진단 및 전담팀 구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이관 대상 업무 분석 및 업무 수행인력 규모 파악, 국고 대응투자와 지자체 자체 사업 이관 여부 및 범위 결정, 이관 관련 애로사항 해결 방안 마련 등에 힘써왔다. 더불어 유보통합 전담팀도 오는 3월 1일자로 구성된다. 장학관을 팀장으로 장학사 3명, 교육행정지원 6명, 도청 파견 직원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의무이관, 서비스 통합, 법령개정, 의회협력 등 유보통합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박주용 부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보육업무?재정?인력 이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다”면서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유보통합 선진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